# 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10호 - 주체91(2002)년 4월 24일 백두산 편집부

# F-15K 선정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광버스들은 쉴새없이 드나드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온 대표는 중상을 입혀 내모는 게 말이 됩니까?≫

23일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진입로에서 F-X공동행동, 천주교 F-X대책위 주최로 열린 ≪F-15K 내정철회와 박순희 대표 중상 경위 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천주교 여성공동체 김선식 회장은 ≪청와대가 일개 관광지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선식 회장은 ≪박순희 대표가 현재 식사도 전혀 못하고 있고, 하루 3-4시간씩 링겔을 꼽고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사고를 일으킨 경찰 당사자만 병원에서 사과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고 밝히고 ≪사고의 진짜 책임자인 청와대 경비대장과 종로경찰서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요구 과정에서 청와대 2002경비대에 의해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천주교평화지기 박순희 대표 교통상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F-15K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활동계획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F-15K 확정발표로 한국이 과연 주권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6조원대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F-X 사업을 일부 정책결정자의 독단과 미국의 압력에 쫓겨 결정한다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F-15K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성명서는 ≪전날의 면담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가로막고 박순희 대표에게 중상을 입힌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F-15K 선정철회를 위한 F-X공동행동의 향후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4월 27일, 5월 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4월 24일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또, 김종일 사무처장은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중지 가처분 신청등의 법률적 대응과 함께, 4월 25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를 조직화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청와대로 제출하려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1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경찰현장 책임자는 ≪청와대는 민원실이 없으니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며 참가자들을 막아나섰고, 대표단은 ≪청와대로 가는 길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어서 길을 비켜서라≫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경찰이 길을 비켜섰고 문규현 신부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청와대 면회실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23

# 군국주의망령 몰아오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21일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것은 군국주의망령을 몰아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참배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과거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일본당국자들은 물론 집권계층들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왔으며 참배하는 경우에도 개인자격의 명분을 걸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이 누구의 눈치를 봄이 없이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과거침략행위에 대한 죄의식감을 가지고 그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도 아니며 또 평화를 지향해서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는 복수심과 선행자들이 이루지 못한 대륙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일본 국민들 속에 군국주의적 **사상과 재침열기를 불어넣는 사상적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통해 일본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어 그들이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실현에 나서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침략에 필요한 무력증강과 전시법이행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역사왜곡행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고이즈미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와 결별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려 한다면 지난날의 침략역사를 전면 부정해 나서지 않을 것이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자들의 명목을 빌며 이빨을 갈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새 세기를 평화와 발전의 세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몸을 잠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략의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를 즉시 파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느때든 북을 반대하고 한반도를 타고 앉은 침략전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실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바뀌었지만 일본반동들의 침략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독사마냥 재침의 독을 내뿜으며 한반도와 아시아나라들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이 어제날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군국주의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

2 종합
-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 오사까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 드리는 모임
- 김수환추기경 교또제1과를 방문

3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5)

5 세기와 더불어
- 7장 1절 보금자리 (1)

7 칭송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일화
- 영생의 노래
- 주석님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8 노동신문 정론, 논설
- 백두산혁명강군 (2)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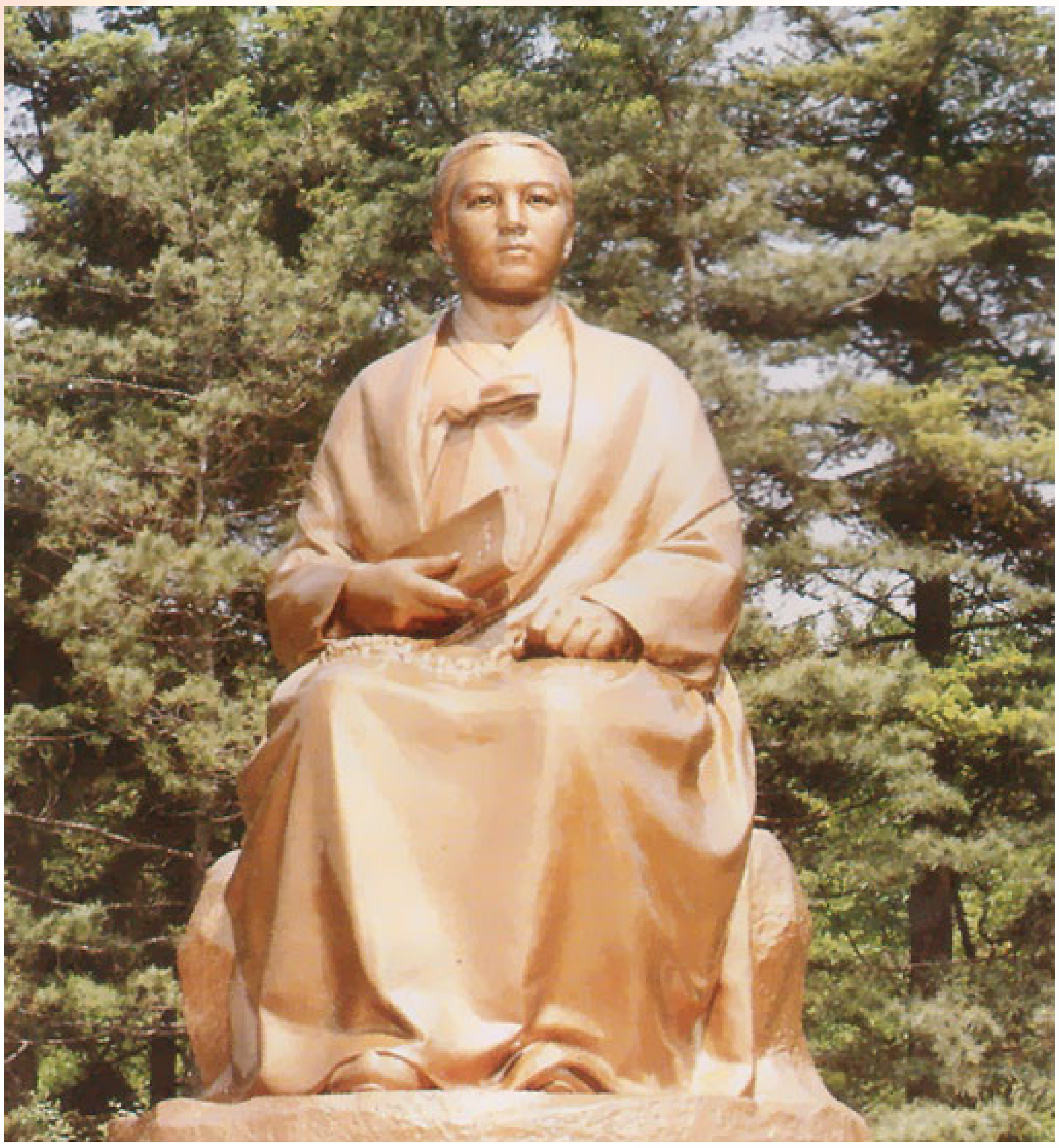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6.15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미국의 충견
- ≪악의 제국≫의 창녀
- 사북의 교훈 무엇을 보여주었나

13 투쟁보도
- MD 공대위, MD 관련 워크샵 개최
- 인터넷 검열에 맞선 등급거부선언운동
- 족벌신문의 소년지는 불량식품
- 조선일보 반대 거리연설회
- 대통령이 직접 의혹 풀어라

15 운동강좌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 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4)

#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 탄생 110돐을 맞으며 21일 아침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신 녀사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과 묘앞에 놓여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홍성남, 김일철, 전병호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군사학교, 교육, 출판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2일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 합동, 단독, 조별공연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단들의 합동, 단독, 조별공연이 21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진행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은 조선인민군협주단과 봉화예술극장에서 합동공연을, 재미조선인예술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단, 따쥐끼스딴예술단, 몰도바음악단, 인도네시아새예술단은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로씨야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은 4. 25문화회관에서, 로씨야명배우단, 우크라이나음악단, 아르메니야음악단, 스위스플류트4중주단은 모란봉극장에서, 우크라이나무용단은 청년중앙회관에서, 중국, 로씨야, 몽골교예배우들은 평양교예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출연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주석의 력사가 계속 흐르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위대한 공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2일

## 오사까에서 교육원조비, 장학금 배려에 감사 드리는 모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48번째로 보내 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 드리는 재일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19일 총련 大阪부본부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부의장 겸 교육회중앙 권순휘회장, 조령현부의장, 교직동중앙 채홍열상임고문, 총련 大阪부본부 김윤선교육부장, 교직동 大阪부본부 김홍휘위원장, 과협 大阪부본부 송재수회장을 비롯한 近畿지방 교육일군들과 과학자, 류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재일청소년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148번째로 2억 6,260만円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돌려 주시였다. 이 사랑을 받아 안은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한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48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데 대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총련중앙 조령현부의장이 랑독하였다.

이어 모임에서 보고를 한 채홍열상임고문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148차례에 걸쳐 보내 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실로 448억 6,656만 3,000円의 거액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지금으로부터 45해전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어도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받으시여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생활과 운명을 격정하시며 자라 나는 새 세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거듭 돌려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총련의 애국사업과 동포사회에서 민족성고수문제가 가지는 절박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족성을 지키고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후대들에게 민족성과 애국애족정신을 체계적으로 심어 줄수 있는 마당인 민족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 주체91, 4월 22일

## 어린이의 우리 노래가 너무 좋아요

### 남조선의 김수환추기경 교또제1과 ≪에루화≫를 방문

남조선의 군부독재정권시대에 카톨릭서울교구장으로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에 앞장 섰으며 지금도 민중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는 김수환추기경(金壽煥樞機卿, 80살)이 20일, 京都조선제1초급학교와 京都코리안생활쎈터 ≪에루화≫ 등을 방문하여 이곳 교직원들과 학생들, 유치반 어린이들, 1세동포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교또조선제1초급학교를 찾은 김수환추기경

이날 김수환추기경과 수행원, 주최자측의 관계자 등 10여명이 京都조선제1초급학교 교문에 들어서자 구영태교장, 윤길석교육회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수환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고 학생 대표 둘이가 꽃다발을 드리자 김수환추기경은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환희에 찬 얼굴로 답례하였다.

일본에 도착한 순간부터 몸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김수환추기경은 이날 부속유치반을 돌아 보고 귀여운 어린이들이 부른 ≪색동저고리≫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하면서 한명한명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순진한 어린이들의 우리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이 났어요.≫라고 감상을 말하였다.

≪에루화≫를 방문한 김수환추기경은 정희순소장으로부터 이곳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1세분들의 나이평균은 얼마나 되며 고향은 어디인가 등 하나하나 물었다. 또 ≪에루화≫에서 창작한 ≪에루화타령≫을 모두가 합창한후 김수환추기경은 그 답례로서 남조선의 노래 ≪사랑해≫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1세동포들을 위해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라는 글씨를 남긴 김수환추기경에게 구영태교장이 인삼꿀, 조선화를 선물로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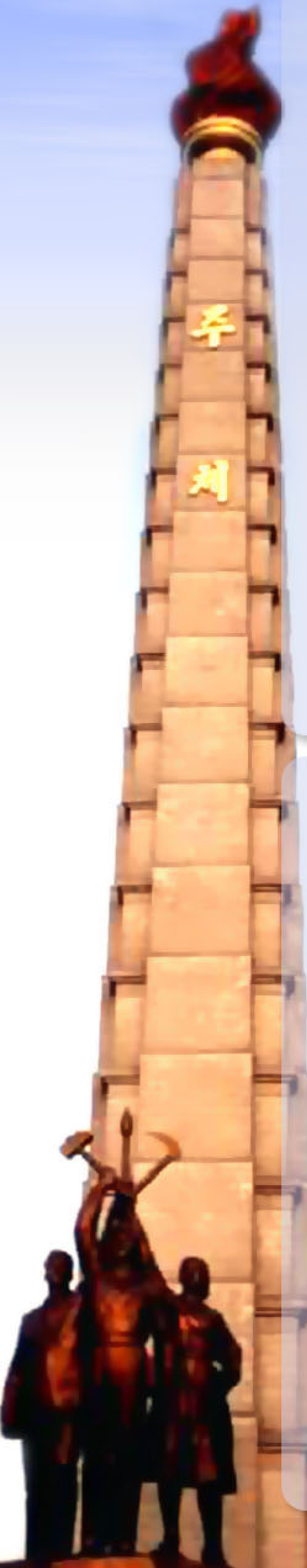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이날 김수환추기경은 우리 민족학교의 력사와 특히 조성금문제 등 조선학교가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리해를 표시하고 ≪아이들의 우리말이 인상적이였어요.≫라고 말하였다.

김수환추기경은 체류기간, 東九條의 카톨릭시설인 ≪希望의 집 아동관≫에서 동포고령자, 우또로동포들을 비롯한 장애자들과 담화를 나누고 22일에 떠났다.

조선신보 주체91, 4월 23일

# 조선노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 (5)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 3. 당대렬의 조직사상적 공고화(3)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과 생활준칙에 맞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낡은 사상은 꾸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여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의 잔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동적 사상의 독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들은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하게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조아 사상과 썩어빠진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바로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형식은 선전과 선동입니다. 선전사업은 당의 사상과 이론, 노선과 정책을 체득시키는 것이며 선동사업은 대중을 혁명과업수행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선전사업은 논리정연하고 알기쉽게 설득력있게 해야만 하며 선동사업은 감동적으로 기백있게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에 맞게 기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논리성이 있고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선전과 호소성, 전투성, 기동성이 있는 선동 사업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선전, 선동체계를 확고하게 세우고 선전, 선동역량을 꾸려야 하며 선전과 선동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널리 활용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교양망과 강연, 선전망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출판보도물과 문학, 예술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출판보도물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 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어내 그것을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학습강사와 강연강사, 선동원, 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일군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선전일군은 남을 교양하는 사람인 것만큼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전선동사업을 대중적으로 실속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선동일군들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것인 만큼 당중앙위원회가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상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면 사상사업의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잡사상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 밑에 모든 사상사업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조직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공고히하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는 당사업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서는 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고 그 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은 당조직들의 유기적 결합체입니다. 당은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체계를 이룰 때에만 조직된 부대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을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역 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들에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층조직을 옳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기층당조직을 옳게 조직하여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전당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으며 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 당의 혈맥이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층당조직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데 따라 새로운 생산단위들이 많이 나오고 일부 행정지역들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개편사업을 기동적으로 잘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를 준비된 일군들로 꾸리는 것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당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각급 당위원회를 직위 본위로 하려는 경향을 없애고 당에 끝없이 충성하며 지도능력이 있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일군들로 꾸리는 원칙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잘 아는 여러 부분의 간부들과 생산현장에서 노동하는 핵심 당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당위원회들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당원 대중의 지위와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도, 시 군당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 우리 당이 내놓은 준후보위원제를 옳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후보위원제는 당위원회들이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핵심당원들을 망라시키는 제도입니다. 준후보위원제는 당위원회들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아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위원회를 꾸리는데서 생산현장에서 노동하는 핵심당원들을 망라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두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 위치와 임무에 맞게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모든 활동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조직들을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당의 노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의 활동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군당위원회는 기층당조직들을 지도하며 당정책을 집행하는 당의 말단 지도 단위이며 집행단위입니다. 군당위원회는 기층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기층당조직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군 안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침투시키고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기층당조직은 당원들이 소속되어 생활하는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입니다 기층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 수 있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당 앞에 나선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말단 기층 조직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당원들이 당생활을 조직화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당규약상 요구대로 옳게 조직, 지도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는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위원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 지도방법입니다.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 활동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광범한 대중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지도를 과학적으로 원만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집체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 데 대한 당건설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발양시켜 제기된 문제들을 당과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토의결정하며 사업을 잘하여 당위원회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집체적 지도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위원회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위원들은 당위원회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당의 결정과 집행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당위원회활동을 옳게 조직하고 위원들의 당적 분공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하며 당위원회결정을 집행하는데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부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은 혁명적 직능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상당한 분야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 모든 부서들이 자기 직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기초위에서 부서들 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은 부서 상호간 사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작전하며 당위원회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긴밀히 협동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조직부와 선전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부는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당생활지도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선전부는 선전, 선동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교양, 개조하여야 하며 광범한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 4.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1)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군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불패의 위력을 지닐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 데 대한 당건설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되어야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선봉대로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당자체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노동계급은 아직 미약하였고 인민대중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산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역량을 빨리 확대, 강화할 수 없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울 수 없었습니다.

공산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당시 근로자들을 망라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해방 후 북반부에는 노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함께 근로자들을 망라한 신민당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대중을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가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역량의 분열을 막고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새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대중의 이익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 당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대중적 당을 건설할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파분자들은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면 당이 소자산계급화된다느니, 당의 지도사상이 달라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합당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우리는 합당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노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대중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을 두 당 중앙에서 먼저 토의하고 산하 각급 당조직들의 토의에 붙인 다음 세포로부터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당의 조직적 결합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매우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합당 결과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게 되었으며 당의 두리에 혁명적 역량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의 창립은 근로대중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동맹을 튼튼히 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적 당건설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되며 우리 당건설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대중적 당건설노선은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우리 당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내놓은 노선이지만,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도 맞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텔리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가 더욱 일치되고 그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날을 따라 강화되는 사회발전과정의 합법칙적 요구에도 맞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근로단체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당의 인전대입니다. 근로단체는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연계를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을 조직하는데서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근로단체를 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근로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다 망라시켜야 대중운동의 분열을 막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단체 건설 경험에 기초하여 계급별, 계층별로 근로단체를 조직하고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통일적으로 망라시킬 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짧은 기간에 계급별, 계층별로 되는 근로단체들을 내오고 정당의 소속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노동자, 사무원들을 직업동맹에, 농민들을 농업동맹에, 여성들을 여성동맹에 묶어 세웠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민주청년동맹을 내오고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통일적으로 묶어 세우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는 공산주의 청년동맹, 학생동맹, 해방청년동맹, 기독교청년회 등을 비롯하여 여러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계급적 원쑤들은 반동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청년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각 정당들도 제각기 자기 주위에 청년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청년운동이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운동의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 깃발아래 각계각층 청년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청년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하는 청년들의 유일한 정치조직이었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됨으로써 광범한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단체를 조직한 다음에는 혁명발전에 상응하게 근로단체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결과 조성된 새 환경은 그에 맞게 근로단체 조직들을 강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민들의 조직이였던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농업근로자동맹을 새로 조직하였으며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강화,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여성동맹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 1. 보금자리 (1)

우리는 1933년 2월 중순에 마 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왕청유격구로 향하였다. 20일 동안 산전막에서 정치토론만 하며 갑갑하게 지내던 18명의 유격대원들은 행길에 나서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을 다그쳤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셔지지 않았건만 대오는 청신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지금 왕청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특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현장의 연설이 길고 소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 것으로 유명합지요 하는 기지있는 말로 대답하곤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농질을 즐기는 왕청지방 해학가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어낸 말인 것 같다.

1933년 당시의 나에게 만일 그런 명구가 있었다면 모진 곤경을 치르고 난 전우들에게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왕청이 어떤 고장입니까?≫하는 대원들의 물음에 그저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대답밖에 해주지 못하였다.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말은 혁명가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왕청은 간도의 여러 현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반일독립운동이 가장 백열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노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이동휘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 인재 양성에 심혼을 바쳤다.

독립군의 맹활약과 독립운동자들의 출몰은 이 지방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켰고 그들을 반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독립운동이 조락단계에 들어서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연해주지방과 소만국경 일대로 자취를 감춘 다음부터 왕청지방에서의 민족해방투쟁 영도권은 점차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투쟁의 주류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걸구어온 애국애족의 토양 위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운동의 동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압도적 다수는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 대열 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사상개조 과정을 거쳐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로 있었다. 아무런 주의에도 관계하지 않은 말쑥한 새 사람들만 가지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발전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계승과 혁신의 원리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의 사상이고 공산주의운동이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 가운데서 최고 단계의 혁명운동이라고하여 이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서 발생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쨌든 왕청은 반일투쟁역사가 깊고 군중토대가 좋으며 정치적 지반도 튼튼한 곳이었다. 조국의 육읍지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간도지방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중심지인 연길, 용정 지구와도 이웃하고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고장에 혁명가들이 많이 집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학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고, 홀레브를 먹으려면 쏘련으로 가고, 혁명을 하려면 간도로 가라는 유행어는 동만을 광복운동의 최전방으로 보고 그 곳을 끝없이 동경하던 당시 조선청년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간도로 가는 것은 화구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기 위하여 그 화구 앞으로 주저없이 돌진하였다. 유격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도 경쾌했던 것은 거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푹신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이 있고 인민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디디고 다닐 땅이 있으며 일본천황의 칙령이나 총독제령으로써도 뒤집어버릴 수 없는 우리 식의 참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영구유격구

우리가 마 노인을 앞세우고 전각루로 향하던 1933년 2월은 동만 각지에서 유격근거지 창설사업이 기본 적으로 완료되어 그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뒤였다.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그 사상을 제시하고 방침으로 채택했던 중심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그때 무력항쟁을 하자면 진지를 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진지란 유격근거지를 의미하는 우리 식의 소박한 표현이었다.

삼도만유격구역

우리가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논의된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방도를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한 것은 1932년 봄의 소사하회의에서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간도 여러 지방들에 유능한 지도핵심들을 파견하여 농촌혁명화를 다그쳤다. 이것은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었다.

혁명화된 농촌지역은 유격구가 꾸려질 때까지 반일인민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임시 거점으로 되었으며 유격근거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겨울 명월구회의에서 이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어랑촌, 대황구, 연통라자를 비롯한 여러 고장들에 유격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건설된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그들이 겪은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 있다.

두만강 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을 꾸리는 데서 양성룡, 이광, 장룡산, 최춘국, 주진, 박동근, 박길, 김일환, 차룡덕, 강석환, 안길, 이국진, 이봉수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선혈과 노고는 역사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국내와 해외에서 한다하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에 집결하였다. 왕청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백룡, 조동욱, 최성숙, 전문진을 비롯한 북만의 공산주의자들도 소왕청으로 찾아왔다.

소왕청의 새주민들 가운데는 연해주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도 있었고 적구에서 다년간 지하활동을 해오다가 정체가 탄로되어 투쟁무대를 바꾼 사람들도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이 간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월경 탈출한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맑스주의 신봉자들도 있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로는 이처럼 혁명에 참가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실천투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단련된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진 정수분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민구성도 대왕청하의 청수처럼 깨끗하였다.

그 기개와 담력으로 말하면 전부가 일당백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책원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항일근거지들에서 유격대오를 늘리고 당, 공청을 비롯하여 반제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 아동단,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계층별 조직들과 반군사조직들을 내옴으로써 전민항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정권이 유격구역마다에서 태어나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노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만민평 등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짚고 거들먹거리는 부자고 없었고 빚과 세금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민들의 낭만이었다. 인민혁명정부가 나누어준 분여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공산주의

→

자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였다. 끝없는 유혈과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에 찬 생활이였으나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적들의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민족해방의 장엄한 새 역사를 개척해가는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은 조국 인민들의 찬탄과 동경을 자아내는 낙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되였다. 조선민족은 그 거주지와 이념에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피로써 쌓아올린 이 성새를 조국해방의 유일한 등대로 바라보며 충심으로 지지성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구는 사람들이 낭만과 희열과 희망에 넘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였으며 수천년을 두고 꿈꾸어온 인민의 숙망을 꽃피워준 이상향이였다.

유격근거지의 존재는 도꾜 대본영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우환거리로 되였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노선의 북부지대와 잇닿아 있는 이 지대를 그들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간도 일대를 ≪반만항일의 심장부이며 북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공산당의 동맥이기도 하다.≫고 한 다까기 다께오의 표현은 적중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동만의 유격근거지를 가리켜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이 말 속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군국주의 집단의 공포심리가

대황구유격구역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을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본 것은 이 일대의 영역이 특별히 넓거나 이 지방에 관동군을 제압할 만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무력이 진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간도에서 던진 작탄이 도꾜의 궁성이나 대본영의 지붕 위에 날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였다. 그들이 간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위험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일감정이 극렬한 조선사람들이고 그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라는 데 있었다.

간도지방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9할 이상이 조선사람이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지배층이 이 지대의 유격구역들을 만주통치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로 여기게 된 까닭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국내와 만주 광야에서 십 년 유여의 항쟁을 계속해온 의병시대의 용장들과 독립군 잔류 세력의 대부분도 이곳에 남아 화승대로 일본군경들을 겨누고 있었다.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정과 혈연적 유대의 본보기도 여기에서 창조되어 만주전토와 전 중국적인 판도에로 확대되고 있었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은 ≪동양 평화의 암≫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꽃이며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은 항일무장투쟁을 그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토벌≫에 의하여 엄중한 시련에 부딪쳤다. 그러나 적의 초토화작전은 오히려 간도 땅에서 유격근거지의 창설과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1932년 봄 관동군과 노선군은 이른바 간도처리방책이라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것은 조선군 소속의 임시파견대를 투입하여 간도지방의 혁명운동을 탄압하려는 흉악한 모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나남사단 소속의 일본군 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경원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개의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 임시파견대는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동만 4개 현의 모든 촌락들과 시가지들을 과녁으로 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궐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에 사정없는 포화를 들씌웠다.

1932년 4월 초의 대감자 습격을 시발점으로하여 왕청의 산과 들도 피바다에 잠겼다. 대감자는 한때 이광이 아웅걸, 이용범등과 함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곳이고 김철, 양성룡, 김은식, 이응만, 이원섭 등 투사들이 공안국을 습격하여 무장을 탈취하던 부락이다. 대포와 기관총, 비행기로 무장한 나남 19사단의 대병력이 물밀 듯이 쓸어들어오자 이 부락에 주둔하고 있던 왕덕림 휘하의 구국군 부대는 마반산을 넘어 서대파로 황급히 철수하였으며 마을의 보위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토벌군≫에 투항하였다.

대감자를 점령한 일본군은 연이어 비행기로 왕청시가를 들부수고 주민가옥들에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왕청시내에서 제일 큰 지주이고 부호인 이항종의 집도 점령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그 다음은 덕원리와 상경리가 불바다로 변하였다.

이 ≪토벌≫이 얼마나 잔학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였던지 왕청 사람들은 그 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뒷산에 들들 울리고**
**기관총과 유산탄은 빗발같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 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에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덕원리의 농촌은 재터뿐이다**
**무죄양민 주검은 들에 널리고**
**왕청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땅에 살고 있는 무산대중아**
**일치단결 일어나 싸워나가자**
**우리들은 끓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리라**

소왕청과 대왕청 골 안으로는 야수들의 ≪토벌≫에 집을 잃고 혈육을 잃은 피난민들의 분류가 그칠 새 없이 흘러들었다. 일본의 비행기들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는 그 인파를 향해서도 폭탄을 마구 던졌다.

수정같이 맑은 왕청의 강물은 삽시간에 선혈로 물들었다. 어떤 날은 그 강물로 학살된 사람들의 창자가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마 노인이 우리를 데려다준 전각루도 간도 임시파견대 살인마들의 행패가 심했던 고장이였다. 이 고장에 달려든 적들은 수십 명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걷어 넣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였다.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 ≪전각루 침입에 대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이 배포되어 돌아간 것만 보아도 이 ≪토벌≫의 규모와 야만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간도 혁명의 중요한 발원지들의 하나인 소왕청과 라자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각루는 일찍부터 항일투쟁의 세례를 많이 받아온 고장이였다. 수천 명의 농민들과 뗏목꾼들, 채벌노동자들이 한데 뒤섞여 와글와글하는 이 골안에는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과 함께 계층별로 되는 혁명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조직들이 군중을 동원하여 춘황투쟁 때에는 마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보위단을 들부수기까지 하였다.

군중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은 보위단원들은 그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토비가 되고 말았다.

투쟁은 승리하였으나 혁명군중은 13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 전각루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배출하는 온상으로 됐다. 왕청유격대 3중대장이였던 장룡산도 전각루에서 삼차구까지 다니는 뗏목꾼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이광이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활동하던 하마탕은 이 마을로부터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적들은 공산당원 한명만 있어도 그 부락 주민들을 전멸시켰다. 공산당원 1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군중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 일본군경들이 제창한 구호였다.

중일전쟁 때 화북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오까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의 간도 ≪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였고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역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 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3광정책과 이른바 ≪비민분리≫를 목적했던 집단부락 정책은 알제리의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였고 월남 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였다.

삼도만, 해란구, 용정, 봉림동을 비롯한 연길현의 이름있는 혁명촌들도 모두 주검으로 덮였다. 훈춘현의 삼한리 일대에서는 1,600여 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렸다. 연길 한개 현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명에 달하였으미 간도 임시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일본군은 간도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수단인 화식도구까지 모조리 파괴하였다. 밥도 못해먹게 가마를 깨뜨리는가 하면 노전을 들어내고 구들장을 파헤쳤다.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와 재목들을 대두천 시내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풀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 대신 자갈돌을 달구어 밥을 지어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감자나 대두천과 같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토벌군≫의 강압적인 퇴거령은 지주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차룡덕

항일무장부대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적지 않은 몫이 지주나 자산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였다. 적들은 이 원천마저 봉쇄함으로써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혁명군은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것이였다.

≪토벌대≫의 검질긴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끼니를 번지며 산중에서 헤매였다. 그러나 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였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막바지까지 가면 더 들어갈 곳이 없었다.

막바지가 나지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수림 속에 몸을 숨기곤 하였는데 이런 때에 어린애들이 울음소리라도 내면 몰살을 당하는 판이였다.

어떤 여인은 ≪토벌대≫가 근처에 와서 돌아칠 때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가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품에 꼭그러 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의 총구 앞에 놓여있는 수십수백명에 달하는 혁명군중의 신변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토벌대≫가 돌아간 다음 아기를 보니 그 어린 것은 벌써 숨져있었다.

이런 비극은 간도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에나 다 있었던 비일비재의 일화이다.

(내일 계속)

일화

# 남녘동포들도 밥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오

주체54 (1965)년 7월초순쯤에 이북 기상통보국의 한 직원은 각지 기상관측소에서 온 기상통보자료를 종합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하던 일을 끝낸 그는 책상위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때 전화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떠올랐어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이즈음 그는 바로 이맘때에 주석님께서 거시는 전화를 수삼차 받았었습니다. 그분께서 예년에 없는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되셔서 기상통보국에 날씨변동정형을 알아보시곤 하셨는데요.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림없었습니다.

**≪날씨가 흐렸는데 어디서 오는 저기압이오?≫**

주석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왔어요.

≪내몽고쪽에서 오는 저기압입니다.≫

**≪내몽고쪽에서...≫**

≪네, 내몽고쪽입니다.≫

**≪남쪽에서 오는 저기압이 아니구만.≫**

주석님께서는 서운하신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의 계절을 보면 남쪽 저기압이 밀려와야 하였고 그래야 비도 많이 내릴 수 있는 것이였어요.

기상통보국 직원은 주석님께서 서운해하시는 이유도 이런 사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 말씀올렸습니다.

≪수령님, 그래도 내일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온단 말이지. 얼마나 올 것 같소?≫**

≪5밀리내지 10밀리 올 것 같습니다.≫

**≪5밀리내지 10밀리... 5밀리나 10밀리라도 오면 좋겠소. 조금이라도 보충이 되겠소.≫**

주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후 잠시 동안을 두었다 다시 물으셨어요.

**≪이번 저기압이 우리 나라 전반 지역에 다 미칠 것 같소.≫**

≪저기압세력이 약해 중부조선까지만 미칠 것 같습니다.≫

**≪중부까지만 미친단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또 끊어졌어요. 잠시 후

**≪곤란하구만.≫**

하시는 실망어린 그분의 음성이 무겁게 울려왔어요.

≪네?≫

주석님께서 무엇인가 깊이 심려하고 계신다는 것이 절박하게 느껴졌으나 무엇을 놓고 곤란하다고 하시는지 기상통보국 직원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석님께서 말씀하셨죠.

**≪저기압이 중부조선까지만 미친단 말이오. 남녘동포들도 밥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오. 거기도 두달이나 가물었는데...≫**

순간 직원은 콧마루가 찡했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던 비가 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석님께서 심려를 덜지 못하시는 것은 다름아닌 남녘동포들에 대한 걱정이셨던 것이죠. 직원은 주석님께 우환과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말씀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령님,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남쪽 저기압이 밀려옵니다.≫

7월중순에 예견되는 장마철을 염두해 두고 말씀드린 것이였어요. 그러자 주석님의 근심어린 음성이 다시 전류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아직도 보름을 주겠단 말이오. 하루가 **한데...≫**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기상통보국 직원은 아직도 전화에서 그분의 근심어린 음성이 그냥 울려오는 것 같아 한동안 수화기를 놓치 못하고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송가

# 영생의 노래

1. 쌓으신 그 업적 가사가 되고
베푸신 그 사랑 선율이 되어
오늘도 울려가네 경향천리에
**김일성**주석님 칭송의 노래

2. 뵙고픈 그리움 흠모심 되고
빛나는 태양상 숭배심되어
세월넘어 울려가네 삼천리강산에
**김일성**주석님 경모의 노래

3. 하나된 겨레마음 충정이 되고
뜨거운 인류축원 영원이 되어
무궁토록 울려가네 세상천지에
**김일성**주석님 영생의 노래

흠모

#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욘 피터슨이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7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세계진보적인류가 주석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과 그이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이 오늘처럼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 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세계공산주의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며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세계직업련맹 총서기 알렉싼드르 자리꼬브가 ≪세계로동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김일성**주석은 격동하는 20세기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인간해방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천만년 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신 태양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에 공감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숭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쓰고 **김일성**주석은 만민의 하늘,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쳐 주신 자주화의 구호는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기본추세로 되고 있는 현 시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세계직업련맹의 유일한 수호의 길, 승리의 길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숭배하는 진보적인류는 그이께서 태양처럼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세계를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주실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세계를 놀래울수록 그이를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은 소망은 더더욱 절절해 진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원히 세계로동자들과 함께 계신다.

# 백두산혁명강군 (2)

##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21일

## (2)

백두산혁명강군!

이는 수령의 군대, 위대한 백두산장군의 군대인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성스러운 호칭이다.

조선인민군의 백전백승의 비결, 력사상의 모든 군대와 다른 우리 군대의 특출성을 알려면 백두산장군들의 군대로서의 우리 군대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건군시조로 하고 백두산을 고향으로 한 군대, 백두산장군혈통을 이어 가며 백두산장군들을 닮은 군대이다.

우리 군대의 모습은 곧 **김일성**장군, 김정숙장군, **김정일**장군의 모습이다.

백두산장군들이 자신들의 피와 살을 가르고 숨결을 부어 탄생시키시였으며 애지중지 체모를 갖춰 주시고 힘을 키워 주시며 력사의 진두에 자랑높이 내세워 주신 우리 군대,

백두산장군들의 사상이 우리 군대의 지도사상이고 백두산장군들의 위력이 우리 군대의 위력이며 백두산장군들의 력사가 곧 우리 군대의 승리의 력사이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함께 세상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생겨 난 때로부터 수천년이 흘러 왔다. 인류의 건군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의 력사가 개척된 때로부터도 백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사력에 의해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여 온 까닭에 그 어느 인민이나 힘 있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를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자주적인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할만 한 리상적인 군대는 력사에 출현해 보지 못하였다.

인류는 주체조선의 혁명무력을 통하여 군대가 갖출수 있는 가장 리상적인 면모를 보게 되였으며 군대가 지닐수 있는 가장 위력한 힘을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70년 승리사로써 혁명하는 나라의 군대가 가장 인민적인 군대로 되자고 해도 수령의 군대로 되여야 하고 가장 강한 군대가 되자고 해도 수령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이른바 ≪엄정중립≫의 군대도 아니고 ≪통일전선≫의 군대도 아니며 ≪전 인민적군대. 도 아니다.

자본의 아성에 포화를 들씌우며 출현한 혁명적무장력들처럼 낡은 군대에서 갈라져 나와 혁명적으로 조직된 군대이거나 폭동군중의 군사화로 형성된 그런 군대도 아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특색은 수령의 품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력량으로 력사무대에 태여났다는데 있다.

우리 군대에는 애초에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생명체안에는 오직 수령의 사상과 정신만이 흘러 넘쳤다.

항일유격대가 일제의 100만대군에게 전률의 대상이 되고 2천만 동포에게 광복의 희망으로 된것은 그것이 다름아닌 **김일성**빨찌산이였기때문이였다.

소왕청유격구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던 전 일본관동군의 소대장은 ≪일본군토벌대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과 맞다들리기만 하면 매번 참패를 당하여 큰 손실을 보군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항일빨찌산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 ≫고 회상하였다.

혁명의 수령이 사령관으로 계시는 무장대오였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위신 있었고 군사적기적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바로 이 무장대오의 투쟁속에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고 밑뿌리인 혁명전통도 창조될수 있은것이다.

빨찌산들이 과연 일제에 대한 적개심 하나만 가지고 싸웠던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 이런 신념은 빨찌산들에게 초인간적의지를 분출시켰다.

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그들은 15성상 기나긴 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난신고를 다 이겨 낼수 있었고 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따랐기에 걸음걸음 승리할수 있었던것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의 승리, 이것은 결코 우리 군대가 무장이 잘되고 전투경험이 풍부하여 이룩한것이던가.

우리 전사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수류탄묶음 안고 적진속으로 굴러 내렸다.

1211고지용사들이 썼던 맹세문을 읽어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원쑤들은 악착스럽게 달려 들고 있습니다.

허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는 비록 몸이 천쪼각, 만쪼각나는 한이 있어도 한놈의 적도 올려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죽어 묻힐 땅은 있어도 살아 물러 설 땅은 한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사들이 서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 있을것입니다. ≫

미군병사들속에 떠돌던 ≪북조선군의 신비적인 강대성≫에 대한 신화의 비밀은 다름 아닌 수령의 군대라는데 있었다는것을 딸라에 팔려 온 미군병사들이 어찌 다 알수 있었겠는가.

우리 군대의 력사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와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 수령을 닮아 온 력사, 수령의 령도와 인연 없는 잡동사니들을 대오밖으로 무자비하게 불어 내치며 전군이 수령숭배의 순결체로 나날이 완성되여 온 력사였다.

내외의 적들이 인민군대를 우리 당으로부터 떼내려고 책동하고 있던 1950년대 후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였던가.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며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는것을 뚜렷이 천명하시면서 여기에는 조그마한 동요도 있을수 없으며 이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 설수 없다고 단호히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의 그 말씀,

---

당이 군대를 틀어 쥐는것이야말로 조국의 운명에 대한 최대의 책임감이며 군대를 방임하는것은 인민에 대한 최대의 배신이며 무책임이라는 신념이 얼마나 억세게 울리고 있는것인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현실은 군대가 당과 분리되고 혁명을 외면하며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상을 경시하는 길로 나갈 때에는 아무리 강대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의 근본을 지킬줄 아는 군대는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오직 백두산장군혈통만을 생명선으로 이어 온것은 우리 군대의 제일자랑이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자기 발전의 최고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주체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물려 주신 유산중의 유산이다.

혁명의 수령이 후세에 남기는 유산은 많다.

당과 정권과 사회제도도 귀중한것이고 물질생산력도 고마운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것의 존재와 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며 혁명위업의 생명선을 꿋꿋이 이어 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혁명무력을 넘겨 주는것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병사들이 다 자신의 아들딸이라고 하시였다고 하시며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 넘겨 주신 병사들은 다 나의 아들딸들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우리 군력사상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열병식을 거행했던 1995년 10월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 열병식때 군기가 지나갈 때마다 경의를 표하면서 군기앞에서 혁명을 끝까지 하리라고 굳게 맹세하였다고, 자신께서 군기에 경례하는것은 그 부대에 영광을 드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마다 수령님께서 넘겨 주신 군대이기때문에 한종대한종대 보면서 높은 책임감을 느끼시였다고 참으로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백방으로 강화하는것, 이것이야말로 혁명군대의 창건자께 드릴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의인것이다.

**김정일**혁명강군!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우리 군대가 지니게 된 세계적권위와 최강의 전투력이 이 하나의 부름속에 울리고 있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것을 기본사명과 혁명적본분으로 내세운 혁명위업의 기둥군,

고도로 정치화되고 주체사상화되여 대오안에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 이외에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사상도 없으며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사상적순결체,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무조건 받아 들이고 결사관철하는 최고사령관정치의 가장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

이것이 선군시대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이 공인한다. 세계는 **김정일**혁명강군의 불패성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

지금 적들속에서는 조선의 힘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인민군의 실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론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안보와 리익≫에 가장 위협으로 되고 있는 조선의 군사적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각종 정보와 연구진의 분석을 종합하여 도달한 조선인민군에 대한 기본인식은 무엇인가.

≪북조선군이 보기 드문 강경사회주의정치실체라는것이다.

군대는 전쟁과 작전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것이 군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가 최고사령관으로 있는 조선인민군에서만은 이 모든것이 례외로 되고 있다. 때문에 북조선군과의 싸움은 사실상 북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기백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핵심세력과의 정면대결이며 사실상 미국식가치관과 북조선의 사회주의가치관의 정면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북조선군처럼 사회주의사상을 강하게 내건 군대나 또 자기 령도자에 대한 결사적인 옹위를 표방하는 군대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

≪사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군이 가장 위험한 상대로 될수 있는것은 이 군대를 령도하는 세계의 유일한 사회주의고수론자인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있기때문이다. ≫

적들이 잘못 보지 않았다.

우리 군대는 보통군대가 아니라 백두산장군의 군대, **김정일**혁명강군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군대가 특별히 강하고 언제나 백전백승하는것이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얼마나 성스러우며 무엇때문에 싸우는줄을 알고 무엇때문에 목숨 바쳐야 하는가를 아는 군대를 타승할수 있는 적이란 있을수 없다.

최고사령관이 앞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 어떤 험산준령도 넘고 그 길에서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군대,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이 혼연일체가 된 군대를 당할 세력이 세상에 없으며 그런 군대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그렇다. 우리 군대는 어제도 백두산장군이 최고사령관이시였고 오늘도 백두산장군이 최고사령관이시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이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대에 이르러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를 만드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하였다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기에 우리는 조선인민군은 백두산혁명강군이라고 말한다.

→

## (3)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전진하는 조선혁명은 필승불패이다.

백두산장군이 계시는 조선인민군은 지난 70성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다.

70년세월 백두산장군들의 휘하에서 자라며 무적의 힘을 키워 온 우리 군대의 위력은 지구도 깨버릴만큼 크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은 **김정일**혁명강군만이 지니고 있는 기질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가 인민군장병들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려는 결사옹위정신이 전군에 꽉 차넘치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심은 그대로 우리 인민군대의 신념으로 되고 있다.

물론 세계전쟁사에는 자폭공격을 하여 영웅으로 떠받들리운 병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에서는 전체 병사들이 총폭탄용사들이다.

전군의 자폭정신, 이것이 동서고금의 그 어느 군대도 상상해 보지 못한 조선인민군의 특수한 위력이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때에도 동지들을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생명까지 바쳐 일하는 병사들, 이런 병사들이 이제 준엄한 시각이 오면 어떻게 싸우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칠 각오 안고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길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무적필승의 군대에 떨라밖에 모르는 제국주의고용병들은 감히 맞설수 없다.

제국주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앞에 전률하라.

적의 아성에서 울려 나오는 비명소리,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 수천수만의 목숨을 묻어 버릴 무서운 유일한 적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그마한 반도의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일것이다. 미국이 그것에 의해 그 어떤 된타격을 맞을지 모른다. ≫

우리 군대는 사상도 강하고 전법도 우월할뿐아니라 무장장비도 그쯘하다.

우리 군대는 주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현대적무장과 전투기술기재들로 장비되였다.

전략적무기와 작전전술적무기,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 및 상용무기, 공격용무기와 방어용무기, 지상무력과 해상 및 공중무력, 기동무력과 타격무력 등 현대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식으로 갖추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전투적위력은 무한대하다.

조선은 미제가 함부로 폭탄을 들씌우며 신형무기시험장처럼 여기던 그런 나라들과 다르다.

미군이 행진간사격을 하는 식으로 머리를 쳐들고 걸어 갔으며 전사자는 겨우 100여명이였던 전쟁, 인명피해는 격추된 전투기의 비행사 2명뿐이였던 전쟁, 죽은 병사는 격추된 직승기에 탔던 병사들뿐이였던 그런 전쟁을 우리 병사들은 우습게 여긴다.

우리 군대는 싸움을 해도 멋들어 지게 할것이다.

위대한 령장께서 계시는 땅에 감히 범접하는 원쑤들은 살아서 돌아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우리에게 총알과 대포가 부족하여 살아 돌아 간 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뼈도 추려 가지 못할것이다.

군사적폭력으로 남을 치기만 하고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유일초대국≫의 오만한 ≪신화≫가 마가을의 가랑잎처럼 흩날리게 될것이다.

**김정일**혁명강군은 강성대국의 군대, 강성대국조선의 대표자이다.

이 땅에서는 백두산혁명강군이 강성대국건설을 주도한다.

백두산혁명강군이 이 땅우에 백두산처럼 웅대한 나라 -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위업에서 결정적역할을 놀고 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조국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념원과 의지로 아는 우리 군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해내는 우리 군대가 있어 장군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고 우리 인민에겐 무서운것이란 없다.

통일조국의 미래도 **김정일** 혁명 강군의 위력에 있고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앞날도 **김정일**혁명강군이 있어 찬란하며 세계자주화위업의 붉은 노을도 **김정일**혁명강군이 앞장서 펼쳐 나간다.

인류여, 안심하라.

광활한 지구를 무대로 하여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온갖 력사의 반동들과 결사전을 벌리는 오늘의 백두산빨찌산인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력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거꾸로 돌아 가지 않을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조선인민군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강철로 다져 진 영광의 대오라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백두산빨찌산의 순결성을 억세게 고수해 나갈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산장군들만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백전백승을 떨쳐 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이시여!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력사가 상상못한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워 주시여 민족의 운명개척의 찬란한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인민은 한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군대,

영원한 **김정일**동지의 군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백두산혁명강군 만세!

(끝)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1)

##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전문) - 주체91, 4월 22일

세기를 이어 백승을 떨쳐 나가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령장의 성스러운 혁명투쟁력사이다.

우리 혁명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는 위대한 령장의 선군혁명력사가 수놓아 져 있다. 조선혁명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 나가는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선군으로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령장복을 대를 이어 누리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장을 수령으로 모시여 풍파 사나운 20세기를 승리적으로 헤쳐 온 조선혁명은 21세기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혁명의 준엄한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끝까지 완성해 나갈것이다.

## 1

우리 혁명은 위대한 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백전백승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혁명무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력사적과정은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군사적대결전의 련속적과정이다.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의 피어린 격전속에서 태여난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에 대한 교살책동은 없어 질수 없다. 사회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기본수단과 방법은 침략적군사력에 의거하는 전쟁과 군사적압력이다.

우리는 ≪강대성≫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와의 격렬한 대결속에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여 왔다.

우리 나라는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새 세기에도 미제의 군사적압살책동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미제와의 군사적대결전의 가장 첨예한 격전장으로 되고 있다.

강력하고 자위적인 군사력은 자주독립국가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적조건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힘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강력한 군력과 그것을 지휘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으로 된다는 진리의 참뜻이 여기에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무력의 최고사령관의 중책은 국가수반이 담당하는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사령관의 중책은 관직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실공히 군사에 정통한 령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탁월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군대와 인민만이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전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70여년간이나 존재하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를 주던 사회주의국가가 붕괴된 비극적사태는 군대를 이끄는 최고사령관이 령장의 자질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사회주의운명도 끝장이라는것을 보여 준다.

위대한 령장은 출중한 군사적자질과 품격을 지닌 군사의 영재이다.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은 총력의 대결이기에 앞서 두뇌와 지혜의 대결, 군사적기질과 령군술의 대결이다.

아무리 복잡한 군사적문제도 적시에 꿰뚫어 보고 정확히 처리해 나가는 비범한 예지와 천만대군을 한사람같이 통솔하는 령군술,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신념과 의지, 적들을 전률케 하는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지략은 위대한 령장의 필수적특질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기질은 위대한 령장의 기본풍모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령장의 군사적예지와 기질에 달려 있다. 령장의 군사적예지와 기질이자 인민의 운명이며 나라의 자주권이다.

령장은 군사적예지와 지략이 있어야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적을 타승할수 있는 전략전술을 제때에 세워 나갈수 있으며 신념과 의지가 강해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주동적으로 타개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다. 령장은 또한 담력과 배짱이 있어야 조성된 정황을 결단성 있게 처리해 나가면서 언제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다.

위대한 령장의 군사적예지와 령군술, 신념과 의지, 담력과 지략은 제국주의자들의 호전성과 오만성, 전횡을 꺾어 버리는 결정적요인이다.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전에서 언제나 이기는 승전의 열쇠는 령장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령군술에 있고 패배와 수치의 화근은 군사적무지와 비겁성, 나약성에 있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아무리 많은 인원과 현대적인 무장을 갖춘 군대라고 할지라도 군사령관이 군사적능력이 부족하고 담력과 배짱이 없으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 주지 않았다.

조선혁명은 출중한 군사적예지와 기질을 천품으로 지닌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력사적인 반제대결전에서 세기적인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여 올수 있었다.

1930년대 항일대전에 떨쳐 나선 우리 혁명무력을 두고 강도일제는 ≪창해일속≫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희세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은 필승의 신념과 주체전법을 가지고 15성상 결사항전을 벌림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은것도 전설적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때문이였다.

령장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1950년대 이후 집요하게 거듭되는 미제의 악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격파하며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여 왔다.

(내일 계속)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영장이시다.
제3회 - 학사 한원용선생 주체91, 4월 22일

#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영장의 위대성은 혁명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운 것과 함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 무장대오로 만들었는가 하는데 의해 과시됩니다. 적과의 싸움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인 동시에 군사적 힘의 대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타승할 수 있는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용맹과 슬기를 가진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용맹과 슬기, 강한 규율성은 강군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불의의 정황 속에서도 전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싸움꾼으로 키우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인민군 군인들이 외모와 예절, 대열적 면모에 이르기까지 정규화적 면모를 갖도록 하시고 생활을 언제나 명랑하면서도 낙천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군인들이 군사규정과 교범에 정통하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전군의 강철같은 규율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9월 20일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고 군대가 군풍을 세우자면 모든 장령군관들과 군인들이 군사규정에 정통하고 군사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군적인 군사규정 학습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규적 면모가 더욱 일신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몸소 제시하시고 전군이 훈련에 전심전력해서 펄펄 나는 싸움꾼으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훈련을 우리식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10월 1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지휘소에는 그 어떤 정황에서도 관하 부대들을 지휘할 수 있는 현대적인 최신식 설비와 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방에 들리시여 전자계산기들의 동작정형을 지켜보시고 일군들에게 ≪전쟁에서 주체는 군인대중이다. 싸움은 총잡은 군인이 하는 것이지 전자계산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실동 훈련을 기본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중대를 전군 강화의 중심고리로 틀어쥐시고 중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중대는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 단위입니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중대부터 찾으셨습니다. 다박솔중대라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혀있는 포진지와 주변을 돌아보시고 일군들에게 ≪다박솔중대요≫ 이런 것을 다박솔중대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부터 이곳의 중대를 다박솔중대라고 부르게 되어 붙은 이름인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대 군인들의 화력복무 훈련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모든 중대들에서 전투훈련을 싸움 맛이 나게 한다면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무적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맹장의 기질과 안목을 가진 능력있는 군사일군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2월 24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군사지휘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갖춰야 할 전투도덕적 품성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사상이고, 둘째는 배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체83(1994)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군 비행대를 총출동시킬데 대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례없는 훈련명령이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모든 비행대들을 몇 시간내에 일시에 출동시키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때 파쑈 도이췰란드의 공군사령관 게링그가 비행대의 총출동 훈련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실지 출동한 비행기의 총 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행대의 총출동을 명령하신 날은 기상조건도 매우 나빴습니다. 이로부터 일부 지휘관들이 비행사고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요해하시고 단호하게 이번에 진행하는 비행대 출동훈련은 자신께서 직접 공군부대들의 싸움준비 상태를 총검열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달려드는 천만 대적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으시고 단매에 오금을 꺾어 놓으시는 위대한 영장의 산악같은 배짱과 무비의 담력이 그대로 어려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공군 지휘관들의 산악같은 배짱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출동준비를 끝낸 비행대들이 여느때없이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지적된 시간에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하늘을 뒤덥다시피한 비행대들이 위용차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규모와 진행방식은 물론 그 시도 자체부터는 전례를 깨뜨린 대담하고 통이 큰 훈련이라고 경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와 같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이 사면팔방에서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일격에 때려부실 수 있는 슬기와 용맹, 강철같은 규율을 가진 일당백의 펄펄나는 싸움꾼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몇해전에 쪽배를 탄 어린 한 인민군 전사가 뜻하지 않는 일로 해상에서 8척의 적 군함과 맞닥들여 단독으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손도끼 하나를 가지고 수로 제껴떨어진 숫한 적과 맞서 12시간동안이나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적들은 인민군대야 말로 세계에서 제일 가장 강한 군대라고 실토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조선인민군 창건 60돐을 경축해서 열병식이 진행되였고 그 후 조국해방 전쟁 승리 40돐 경축 열병식도 진행되였습니다. 전승 40돐 경축 열병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적들은 우리가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의 열병종대가 주석단 앞을 보무당당히 지나갔습니다. 적들은 그만 아연실색했습니다. 열병식에 미사일이나 땅크는 보이지 않았지만 끝없이 흐르는 열병종대를 보고 북조선에 무슨 군사학교가 저렇게도 많은가고 했습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60돐 경축 열병식이 우리 혁명의 무력의 현대화수준을 시위했다면 전승 40돐 경축 열병식은 우리 혁명무력의 간부화수준을 시위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현대화되고 간부화 된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경탄을 표시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한대의 타격력을 가진 공격수단과 믿음직한 방어수단을 그쯘히 갖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무비의 타격력을 가진 공격수단과 철벽의 방어수단을 훌륭히 갖추는 것은 적과의 싸움을 승리적으로 벌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정치사상적 우월성은 우수한 무기와 무장장비가 안받침될 때 더욱 큰 위력을 내게 됩니다. 무기와 군사장비의 현대화는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현대전의 요구입니다. 인민군대가 군사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와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 형편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많고 많은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렵고 인민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국방공업을 선차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큰 힘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당의 전국 요새화방침을 받들고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이 전선과 후방의 중요 지대들에 방어시설들을 구축해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이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로 기어들어도 놈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할 뿐아니라 지구상의 그 어느 곳에 있는 적도 무자비하게 박살내게 할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을 그쯘히 갖출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요새화되고 조국반선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타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어느 한 나라의 국제전략연구소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에 대해서 첫째로 무장장비가 양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이고, 둘째로 무장장비들이 다행화된 것이고, 셋째로 무장장비들이 국산화된 것이고, 넷째로 무장방비가 조선반도의 기후, 풍토에 적응된 것이고, 다섯째로 무장장비들에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것이라고 논평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인민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미국의 충견

경향각지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극력 반대해 나서는 미국의 충견 이회창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금 항간에서는 이회창을 ≪을사오적≫ 이완용의 대명사로 부르며 저주하고 있다.

그에게는 ≪을사오적≫이완용 딱지외에도 추악한 대명사들이 수없이 붙어있다.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며 영구분열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오늘 한반도정세가 긴장격화되고 6.15공동선언이행이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의 충견 이회창의 남북대결과 분열책동 때문이다.

민족과 나라의 통일보다 외세와 영구분열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회창은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생존하는 친미매국노이다.

원래 이회창은 매국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인간추물로서 그의 애비는 일제통치시기 ≪검찰서기≫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역적이었다. 친일파의 피를 이어 받은 이회창은 애비의 친일행위를 그대로 본따 ≪법관≫으로 있던 30여년세월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된 ≪민족일보≫사장사형사건을 조작하고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 관계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언도한 자가 바로 이회창이었다.

지난 세기 60년대 초 ≪민족일보≫가 ≪외세를 배제한 통일≫,≪경제 교류≫등의 논조를 내세운 것은 온 겨레가 갈망하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대변한 것으로서 죄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은 의로운 언론활동을 한 사장에게 사형, 기자들에게 중형을 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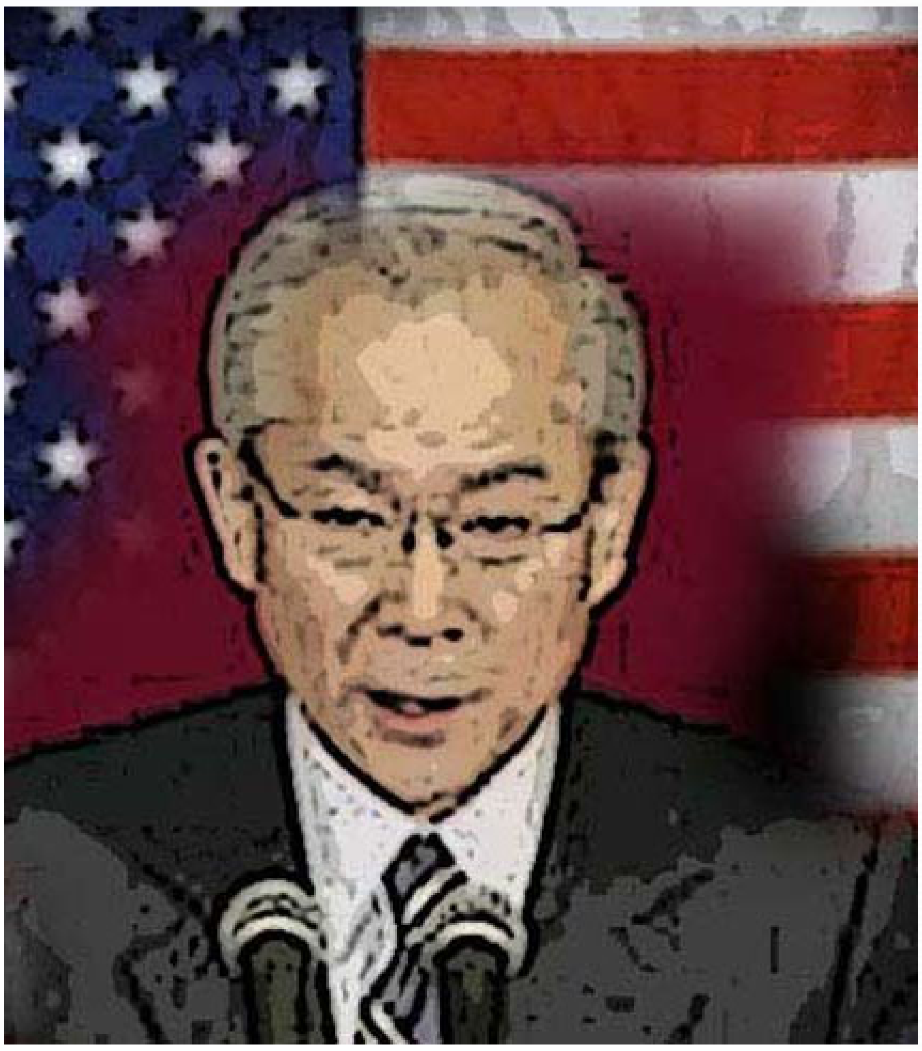
그리고 80년대에 들어 광주대학살만행의 주범인 미제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각계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의 열풍 속에 ≪부산미문화원≫ 방화투쟁이 일어나자 이회창은 이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덮씌우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를 전후하여 극악한 파쇼살인마 반통일광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한사코 가로 막아나선 이회창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이 땅의 전국민이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TV앞을 떠나지 못하며 기쁨과 환희로 들끓고 있을 때 골방에 들여박혀 화투놀이를 하면서 그 이행을 파탄시킬 계책을 꾸미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통일열기가 높아가게 되자 ≪미군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느니, ≪국민이 들떴다≫느니 하고 갖은 악담을 퍼부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미국상전의 망언을 앵무새처럼 받아외우며 ≪상호주의≫니,≪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 하는 쓸개빠진 소리를 줴치다 못해 오늘은 부시의 ≪악의 축≫논을 극구 찬양하며 ≪검증≫이니, ≪투명성≫이니 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 막고 정세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되돌려세웠다.



이회창반통일광의 극렬한 반북대결책동으로 하여 남북사이의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화가 파탄되고 교류, 협력이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산가족방북도 차단되었고 이 땅에는 전쟁의 먹구름만이 짙게 감돌게 되었다.

그가 오늘 안팎의 한결같은 지지환영을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으며 반북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대죄로 된다.

이회창의 작태에 전국민은 분노의 치를 떨며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결성 1주년을 맞으며 가진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우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를 추종하는 만고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었다.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고 환심을 사 어떻게 하나 대통령감투를 써보려고 분수없이 꼬리치며 돌아치는 몰골이 너무나도 역겨워 국민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인간추물, 민족반역자가 대통령후보로 정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치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이자는 노근리사건을 비롯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행과 관련하여 겨레의 편에 서서 미국에 사죄와 피해배상을 요구해 나설대신 도리어 학살자인 미군을 비호, 두둔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우의적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느니, ≪미국의 신경≫을 돋구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배족적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미제침략군의 학살만행을 비호하는 반역행위를 일삼고 있다.

매국역적의 기질이 골수에 밴 그는 민심인 반미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미국을 행각하여 상전 앞에서 삽살개처럼 아부아첨하면서 사대매국행위에 극성을 부리던 나머지 이 땅의 온갖 불행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운명의 구세주≫처럼 내세우면서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의 넋두리까지 쏟아 놓았다.

그는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이북의 ≪미사일위협≫이요, ≪상용무기위협≫이요 하며 남북대결과 영구분열을 부채질해오고 있다.

이회창이야 말로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미국에게 내맡기고 이 땅에 불행과 재난을 몰아오는 특등충견 희세의 반통일광이다.

이런 미국의 현지대리인 이회창역적이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면 7천만 겨레의 염원과 지향이 담긴 조국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실현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민중의 피맺힌 원한도 풀 수 없으며 식민지 예속하에 민족공멸의 핵전쟁참화밖에 당할 것이 없다.

전국민은 민족의 수치인 반통일광이고 반역자인 이회창을 타도청산하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

**성훈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1일**

# ≪악의 제국≫의 창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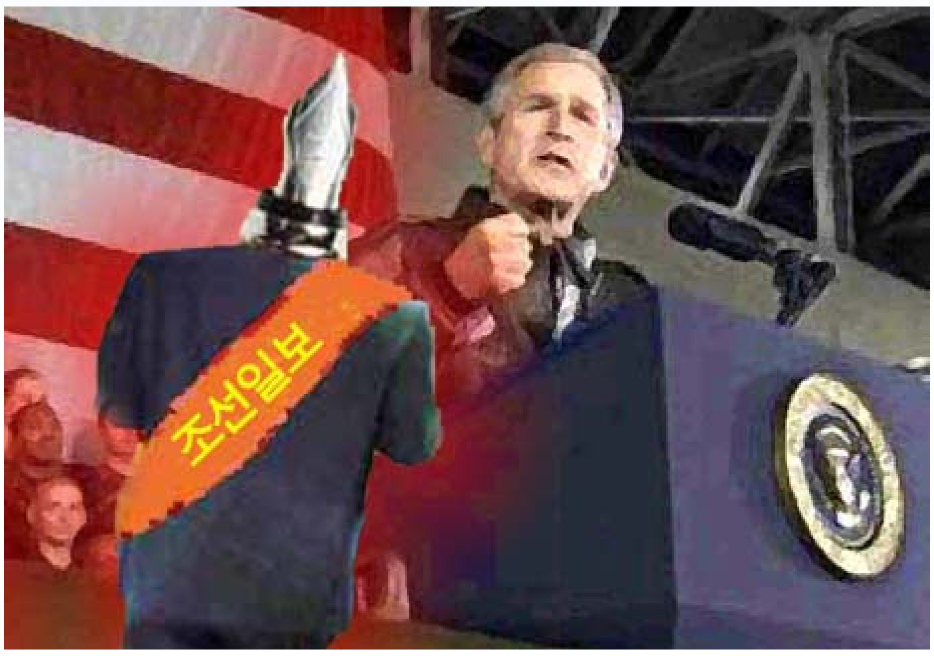
극악한 호전광, 불량배 부시가 정치를 한다는 ≪악의 제국≫미국 때문에 한반도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부시정권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반미감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경향각지에서 미국을 ≪악의 제국≫, 테러의 본거지로 단죄하고 부시를 전쟁방화자로, 6.15공동선언 파괴자로, 정치깡패로, 망나니로 저주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다. 민심은 반미, 반부시투쟁에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그런데 ≪사회의 공기≫,≪1등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민심을 외면한 채 숭미사대주의, 반북멸공에 미친 나머지 ≪악의 제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민족과 겨레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흑백을 뒤집어 가면서 미제호전세력의 전쟁소동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하기에 국민은 ≪조선일보≫를 ≪악의 제국≫미국의 창녀로 야유조소하면서 그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시정권은 출범 첫날부터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을 위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그 길을 차단해 보려고 끈질기게 책동해 왔다.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대북강경노선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면서 이북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깡패적, 불량배적 기질밖에 가진 것이 없는 그는 겨우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악의에 차서 이북을 헐뜯다 못해 나중에는 ≪악의 축≫이라고 걸고들었다. 그 이면에는 이북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을 누르며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이북까지 먹어보려는 본심이 깔려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미국의 비호밑에 대권장악을 위해 혈안이 된 극우보수분자들인 이회창패거리들과 손잡고 반북, 반통일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그 이행을 가로막기 위한 방해책동에 매달려왔고 미국이 ≪악의 축≫발언으로 세계의 규탄을 받고 있을 때에도 유독 이 어용매문지만은 미국을 비호두둔하는 글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면서 그 무슨 ≪상호주의≫요, ≪투명성≫이요 하고 떠들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 막았다.

최근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나팔수가 되어 ≪북은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래식 무기감축≫이요,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이요 뭐요 하는 글들을 실으면서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재난을 덮씌우려고 광분하는 미국침략자들을 비호찬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핵무기사용도 불사하려는 부시악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조선일보≫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본래 ≪조선일보≫는 일제통치시대 일본천왕에게 충성을 맹약한 일본총독부의 시녀였으며 광복후에는 역대 독재자들에게 아부아첨을 일삼아온 언론파시스트이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 막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참화 속에 몰아넣지 못해 안달아하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는 ≪악의 제국≫의 창녀 ≪조선일보≫를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전국민은 서울에서 한라까지 ≪조선일보≫ 거부운동, 불매운동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리며 반미, 반부시,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세철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1일

# 사북의 교훈 무엇을 보여주었나

이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이름은 착취와 억압의 대명사로만 불리워져 왔습니다. 그 저주로운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길은 싸우는 것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22년전에 있었던 사북사태의 교훈을 되새겨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사북의 교훈 무엇을 보여주었나≫ 이런 제목으로 임기수씨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은 사북광업소 동원탄좌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찾기 위해 분연히 투쟁에 떨쳐 일어났던 때로부터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흔히 ≪연옥입구≫, ≪지옥1번지≫로 불리우는 지하수백미터의 탄부객막장에서 일하는 광원들의 처지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지만 당시 동원탄좌광부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광부들은 이윤획득에 혈안이 된 업주의 착취적 횡포 속에 허리도 변변히 펼 수 없는 오소리굴같은 곳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의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광부들은 80년 4월 16일 사북읍에 있는 광산노조 사북광업소지부에서 임금 50%인상과 상여금 500%인상, 어용노조지부장 사퇴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국자들은 4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정당한 투쟁을 포고령위반이라는 구실 밑에 야수적으로 탄압했고 노조지부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광부들에게 짚차를 내몰아 4명의 광부들을 깔아뭉개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자행했습니다.

공안당국과 사측의 이같은 만행에 분격한 이곳 광부들은 4월 21일 마침내 대중적인 투쟁에 분기했습니다. 이날 투쟁에 나선 광부들의 투쟁대오는 삽시에 3500여명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가족들과 주민들까지 합세해 그 수는 무려 7000여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일어나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고서는 임금인상 받아낼 수 없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경찰은 간섭말고 물라가라≫고 외치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투쟁에 나선 광부들은 광산사무실과 사북역은 물론 사북읍 전체를 완전히 장악,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위정당국자들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선군, 영월군 등 7개 경찰소에서 경찰들을 현지에 긴급출동시키고도 부족해 서울에서 2개의 경찰기동중대와 1개 대대의 공수특전대까지 급파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쟁에 분기한 광부들은 조금도 굽힘이 없이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도처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4일간이나 결사투쟁을 벌여 당국자들과 광업소측으로부터 요구조건을 수락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북광업소 동원탄좌광부들의 투쟁은 짓밟힌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써 노동자들의 단결된 위력을 과시한 장거였습니다.

잊지못할 22년전 그날에 벌어진 사북광부들의 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북의 광부들이 한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연 4일간이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굴함없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북의 광부들과 가족들은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자!≫, ≪단결만이 힘이다.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구호 밑에 한사람같이 단결해서 싸운 결과 폭압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제기한 요구조건을 합의서 형식으로나마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뭉친 힘, 단결된 투쟁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사북투쟁은 심각한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원탄좌광부들은 위정당국자들의 교활한 회유기만책동을 미리 간파하고 투쟁을 끝까지 철저하게 결속해야 했었고 투쟁이후 있을 수 있는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광부들은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를 받아낸데 만족한 나머지 투쟁을 끝까지 결속짓지 않고 아무런 사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투쟁을 중단한 결과 파쇼당국의 배신적인 역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가슴 아픈 손실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겁니다.

사북의 투쟁은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려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다운 민주노조를 가지고 그에 똘똘 뭉쳐 광범위한 노동자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실 사북의 광부들이 자기들의 참다운 노조를 건설하고 조직에 의거해서 사북지역의 노동자들은 물론 전국의 노동자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해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이루어냈더라면 당국자들은 감히 그들을 탄압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북의 광부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했을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22년전 사북광업소 동원탄좌광부들의 투쟁이 남긴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잊지 말고 일치단결해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것입니다.

지어진 운명에 순종하면서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노동자대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 그 누가 거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투쟁으로 노동자대중 자신이 쟁취해야 하는거죠.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일~19일

# 한국, MD 참여 첫 단계 들어서

## MD 공대위, MD 관련 워크샵 개최

≪PAC-3, 이지스함 등 미국이 한국에 MD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한국의 MD 참여의 ≪첫 단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MD 공대위)의 주최로 열린 MD 관련 워크샵에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MD 참여, 그 의혹을 밝힌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욱식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사실상 참여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근거로 PAC-3와 이지스함 도입 등을 통한 ≪미국의 한반도 MD 배치 계획≫을 들었다.

정 대표는 또, ≪한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계획≫이라는 근거설명을 통해 PAC-3와 이지스함의 도입에 대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MD와는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과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MD를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는 ≪한미연합방위체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MD 구축 계획은 미국의 MD 체계에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한국의 MD 참여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한미연합전력 차원의 MD 기구 창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욱식 대표는 정부가 애초에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처럼, MD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 내 MD 체계 배치 거부 △MD 관련 무기도입 계획의 전면 재검토 △연합 ·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JTMOC)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위원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MD 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미국의 세계 전략상황 변화에 따른 핵 전략으로 MD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올 1월에 의회에 제출된 NPR은 △핵 위협의 다변화에 따른 핵 선제사용 가능성 △ 기존의 핵억지전략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 등에서 새로운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이번 NPR은 핵사용 대상 목표로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이북,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의 구체적 상황까지도 예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현 연구위원은 NPR은 결국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로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핵사용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의중이 무엇이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이 초래할 가공할 결과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승국(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과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 국장의 지정토론과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을 통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MD 참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차기전투기(F-X)사업에 이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23

# 인터넷 검열에 맞선 등급거부선언운동 시작

##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검열 철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철폐≫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4월 22일은 지난 1994년 정부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서 지정한 정보통신의 날이다.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500 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 집계). 실제로 인터넷은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써 인식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두지 않았다.

2000년 7월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앞세워,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위한 합법적 장치인 등급제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많은 국회의원들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다. 정부는 지는 척(?)하면서 한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2001년 다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급제≫의 망령을 교묘히 끼여넣었다.

현재 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던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 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과 활동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는 국가의 검열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결성된 5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홈페이지 - http://www.nocensor.org)는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의 완전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철폐≫를 주장하며, ≪등급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동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자본가들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오히려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고 식민지 착취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과거의 침묵과 억압을 깨고 커지는 민중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인터넷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고 검열하려는 인터넷 등급제는 결국 우리의 천부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라는 등급거부선언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민간자율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며, 실제로 정부의 검열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그 조치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공대위 선용진 정책기획팀 간사는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PICS 코드 삽입 안하기 선언 운동과 인터넷 등급을 거부하는 인트로 페이지 달기 캠페인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이슈화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후 홍근수 목사, 백욱인 교수, 장창원 목사 등 3인의 대표단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달되지는 못했다.

정우혁기자
참세상뉴스 2002/04/22

# 족벌신문의 소년지는 불량식품

## 학부모단체, 교원노조 소년신문 단체구독 거부 선언

초등학교가 지난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단체 구독해 오던 소년 동아 · 조선 · 한국 일보에 대해 학부모단체 및 교원노조가 ≪단체구독 근절≫과 ≪구독거부≫를 전면 선언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소년일보 구독현황과 폐해를 알리고 교육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초등학교가 신문보급소로 전락해 소년일보의 단체구독 대가로 기부금을 받고, 교사가 구독권유 · 배포 · 대금수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용도 비교육적인 신문을 학교에서 단체구독하는 것은 불량식품을 강제로 먹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개 족벌 신문사의 권력에 맞서 수십년 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각학교에 소년 동아 · 조선 · 한국 일보를 아침자율학습 교재로 이용하지 말 것 △교육부에 학교 내 소년일보 단체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조성을 근절할 것 △학교 내 배포구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소년일보의 가정통신문 배포 · 구독권유 대금수납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전국교육대학 대표자 협의회도 전교조의 소년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지지하며 잘못된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년일보구독을 거부하는 이유는 초등학교가 단체구독을 유지시키고 각 신문사들에게 받는 △기부금의 대가성 △기부금을 위해 단체구독을 사실상 강요하는 학교의 태도 △구독신문이 폭력적 선정적이며 내용면에서도 부실한 점 등 신문자체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 소년 신문사 단체구독 학교에 대가성 기부금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4일 실시한 ≪학교별 어린이 신문구독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99%인 501개 학교가 특정 신문을 집단구독하고 있으며 구독학생비율은 76.18%로 나타났다 단체 구독에 따른 기부금으로 초등학교가 받는 금액은 월 구독료(3500원)의 20%인 700원정도로 한 달에 4억 8천만 원에 이르며 실제 각 학교당 한 달에 91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신문사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사가 각 학교에 대가성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청이 규정한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규칙(교육부령 724호)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경우 금품 접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초중등 교육법29조의 ≪학교에서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민영기 변호사는 ≪ 신문사가 학교에 지급하는 돈은 형식적으로 기부금 수령으로 볼수 있지만 학교의 단체구독으로 인해 구독부수유지와 비용절감의 이익을 누리고 있어 대가성이 인정된다≫ 며 ≪ 각 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그 업무로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법령과 학교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금원 수령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부모 단체 교사노조 전국적인 거부운동 벌여나갈 터

이외에도 신문단체 구독으로 학교는 각

신문보급소로 전락하고 소년신문담당교사는 신문사 배달총무가 되어 업무가 가중되며 또한 기부금이 화장실 청소용역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독 신청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구독률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강요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지도 · 감독권을 포기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은 ≪학부모의 각성이나 교사의 거부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당국의 문제인식의 공유≫라고 지적했으며 ≪교육당국에 여러차례 신문구독의 폐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한 해결 노력이나 불법 기부금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거대 족벌언론에 대항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관행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부터 소년신문구독을 근절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전교조교사들도 소년신문 구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면담을 신청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소년일보 거부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3

# 조선일보 반대 거리연설회

## 시대의 독버섯을 제거하자

한국의 신문인지 미국의 신문인지 모를 조선일보.
일제시대엔 천황폐하 만세! 친일신문
군사독재 시절엔 대통령 각하 충성을 맹세합니다.
민주주의 열망 국민들에게는 사회불안세력 딱지 붙이기
세금포탈 사주 구속에는 언론탄압이다 강짜부리기
6.15공동선언 발표 후에 온 민족이 감격해하는 지라
대놓고 반박은 못하고 꼬투리잡기
민족화해 분위기에는 대북검증하라 민족분열 조장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는 전쟁도 불사하자. 불사하자
용산미군기지 아파트 건설 해야된다. 해야된다.
부시의 앵무새 신문 친미신문 조선일보

반통일매문지 반민족반역지 조선일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다. 통일을 방해하고 전쟁위협에 찬동해 나서는 조선일보.

부정하고 조선일보가 폐간하던지 제정신을 차리고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할 때까지 조선일보 반대 투쟁은 계속되야 합니다.

일시 :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4월 25일(목) 12시
장소 : 종묘공원 앞

임종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대통령이 직접 의혹 풀어라

## 노동시민단체 · 진보정당, 아들 비리 조속 해결 촉구 나서

김대중 대통령 아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과 관련, 노동 · 시민 · 사회단체들이 성역없는 조사와 김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국정마비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비리의혹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동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까지 파탄나 서울역 밤거리를 배회할 때 대통령의 세 아들은 브로커와 어울려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무르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친인척 비리조사 특위≫를 구성, 모든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김대통령은 세 아들이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돼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홍걸씨를 즉시 귀국시켜 자진해서 수사에 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도 각각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비리를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나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사회당 수석부대변인은 ≪권력층의 추악한 뒷거래와 청와대의 개입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 · 사회단체들은 잇따른 권력층의 비리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성역 없는 수사관행, 반부패 교육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내각 총사퇴 주장은 무리한 느낌이며 정치공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도 ≪대통령 아들의 비리의혹은 우리나라의 도덕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성, 윤리성에 근거한 반부패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3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4)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2

### 3) 두 개의 지역혁명에 대한 민족해방혁명의 지위와 역할

민족해방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두 개의 지역혁명은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은 혁명의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고유한 성격과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는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남측의 지역혁명이나 북측의 지역혁명은 모두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이 발전하는 과정도 모두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선도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남측의 지역혁명)은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되고 선도되는 지역혁명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변혁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 전국혁명의 전진을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역혁명을 중심으로 민족해방혁명을 바라보는 반국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은 남측 지역혁명의 적대세력만이 아니라 북측의 사회주의혁명과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모두 봉쇄하면서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민족 전체의 적대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북측의 지역혁명도 남측의 지역혁명도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국면으로 전진되어야 남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북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모두 결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민족해방혁명은 북측의 혁명역량과 남측의 혁명역량이 함께 수행하는 혁명인데, 그 수행과정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은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역량이 있으면 방조역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측이건 북측이건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주력군이 있으면 보조역량이 있는 것처럼, 민족해방혁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냐 방조냐 하는 개념은 역량관계에서 결정되는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개념이지 혁명실천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주도역량으로, 우리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인 역할을 맡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의 주도역량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혁명역량이 혁명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 같이 단결되어 있으며,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으며,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막강한 혁명무력과 혁명적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최강의 정치조직(조선노동당)에 의하여 견고하게 구축된 혁명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혁명역량은 항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역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됩니다. 여기서 남측의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능동적 주체로서 방조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을 남측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들이 방조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마치 비주체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의 관점이 ≪한국변혁에 대한 남측 혁명역량의 주체성과 책임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지만, 혁명실천의 역량은 주도역량이건 방조역량이건 간에 모두 주체성과 책임성을 지니고 있다는 초보적 인식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초보적 인식내용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역량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쪽이 주도적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쪽이 방조적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자는 것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속에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은 방조적 지위를 가지고 방조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김철수 동지가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을 ≪사상에서 주체가 서있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사상문제에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내용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민족해방혁명은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채택으로 마침내 승리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세인식입니다. 이러한 승리국면의 진입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제와의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 승리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정세인식 위에 성립되었던 이론이 아니라, 장차 승리할 것이라는 역사적 전망에 기초하여, 또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반영하여 성립되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 기성이론은 더욱이 남측의 운동권 전반에 민족해방혁명의 요구와 역사적 전망이 아직 불명확하였던 지난 시기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자기가 수행하는 임무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남측의 운동권에게 민족해방혁명의 전략적 요구와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전략적 요구와 역사적 임무를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나,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 관점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조성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의 관계문제는 해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오늘의 승리적 국면을 현실로 경험할 수 없었던 지난 시기에 성립되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 5) 조선혁명의 포괄적 범주와 주체혁명

민족해방혁명, 남측의 지역혁명, 북측의 지역혁명은 조선혁명이라는 포괄적 범주에 포괄되어 있으며, 이 조선혁명을 우리들은 주체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지역혁명(사회주의혁명)과 함께 남측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역혁명을 모두 포괄하는 혁명을 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수행하고 있는 반미자주화운동도 이 조선혁명의 범주에 포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남측의 지역혁명)은 다른 나라의 혁명처럼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별도의 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지역혁명도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은 민족해방혁명과 두 지역에서 수행되는 두 개의 지역혁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동지는 조선혁명을 ≪전국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전국혁명)은 세 개의 혁명을 포괄하는 혁명이며, 세 개의 혁명은 하나의 수령, 하나의 혁명적 당, 하나의 혁명전통, 하나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된 혁명의 단일한 주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선혁명의 세 가지 구성부분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고 전민족적 차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볼 때, 조선혁명이라는 개념과 주체혁명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

##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두 개의 전선론≫이 ≪북의 혁명무력과 남의 보조적인 대중투쟁력이 결합하면 남에서 변혁이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전선론≫은 그러한 전제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북측의 혁명무력과 남측의 대중투쟁력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무력과 근로대중의 반제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의 동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일치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일치성이 곧 조직적 실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측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혁명적 당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을 영도하는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은 조직적 실체로 결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해야 남측에서 지역혁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조직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철수 동지가 사용한 ≪결합≫이라는 개념을 조직적 실체로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쟁전선에서 합세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타당합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민중의 자체 혁명역량이 발전하지 않고 대중정치투쟁이 고양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다른 힘의 뒷받침에 의해 자주적 민주정부의 건설과 보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마치 우리들의 견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역량이 혁명역량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대중적 정치투쟁이 고양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북측의 혁명역량의 지원에 의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건설되고 보위된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조직적으로 결합하여야 민족민주운동의 현 수준에서 벗어나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으로 상승 ·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북측의 혁명역량과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과 투쟁만으로는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방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적 결합이 범민련식의 통일전선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민주운동역량 전체와 북측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결국 민족민주전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한국변혁의 전략적 주선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일차적으로≫ 북측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국보철투쟁에 집중하자≫는 전략노선의 수정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남측 지역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며 동시에 남측 지역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라고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반미자주화투쟁)을 남측 지역혁명의 당면임무인 국보철투쟁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반미자주화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응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술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민족민주운동이 민족해방혁명에서 방조적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측의 지역혁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보철 투쟁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달리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방조하는 투쟁이 아니라, 반대로 민족민주운동이 주도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는 투쟁입니다.

민족민주운동에 앞장선 우리 동지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같은 정권기관들이며, 저들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입니다. 반혁명 책동의 명령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 집행자는 남측의 반혁명적 정권기관들입니다. 명령자를 공격하는 투쟁이 중요하다면 그 집행자를 공격하는 투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자를 공격하는 국보철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 진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투쟁에도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끝)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11월 6일**


**광 고**